

'사회적 사실'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이 사회적 사실에 기반하여 불량식품을 정리해보자.

첫째 사례, 한나라당 고경희 의원이 시판 중인 중국산 김치에 대하여 납의 허용량이 기준치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납이 검출된 30여개 중국산 김치를 정밀 조사하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고의원 측에서는 중국 수입 김치가 236개인데 겨우 30군데만 조사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되느냐 따졌다.

둘째 사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산 김치 16개사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사의 배추김치에서 회충, 구충 등 4가지 기생충이 검출되었다.

셋째 사례, 지난해 6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백화점, 할인점에서 만두가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뽑자'고 지시했지만 현재까지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넷째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라면 스프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남성을 구속시켰다고 대구지방경찰청은 발표했다.



불자 세상보기

홍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음식과 '국가정책'의 수준

다섯째 사례, 김밥과 도시락, 국수 등 국민다 소비식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대장균군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발표했다.

여섯째 사례, 학교급식소 주방의 11%가 쥐뿔, 곰팡이가 발견되는 일이 빈, 한 합동 특별단속에서 의해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고발당했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일곱째 사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대량으로 유통시킨 40대 남성을 구속시켰다고 대구지방경찰청은 발표했다.

여덟째 사례,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우유팩에 빙수를 담아 팔고 있는 등 새로운 불량식품이 나타나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위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부여'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업자를 비난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하지만 기생충일 김치를 비롯한 불량식품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국가 정책이다. 위

에서 논거한 불량식품의 사례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다. 있을만하면 또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만 불량식품의 피고석에 앉힐 일이 아닌 것 같다. 국산김치, 국산 민물고기, 국산 콩나물, 두부는 과연 100% 안전할까? 우리는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 식품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만들고 유통시키는 사람의 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정부는 기생충 김치를 비롯한 불량식품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대응책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냄비처럼 한 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식탁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둘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불량식품 관련자에 대하여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셋째 정부당국, 시민단체 및 국민 등은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올바른 국민이 정신도 올바르지 않겠는가. 정부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조계종 제 32대 총무원장에 지관 스님이 당선됐다. 우선 큰 축하를 드리면서, 한국불교 장자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과 흥흥에 큰 자취를 남기는 총무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크다.

평소 조계종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염원이 있었고, 이번엔 큰 희생의 각오하면서 서원을 세우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한 스님의 서원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원만한 결과로 회향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관 스님이 후보로 나왔을 때 강한 학자풍의 면모 때문에 조계종이라는 큰 종단을 이끌 행정력은 어떨까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본디 최고의 자리란 상징성이 큰 것이요, 큰 방황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적절한 인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풍부한 경륜

조계종 새 총무원장에 바란다

이러한 스님의 특성이 조계종의 역사에 특색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제 32대 총무원장으로서는 안아야 할 짐은 너무도 많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대 화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문중과 파벌을 넘어선 불협화음의 인사를 통해, 또 모든 층도가 함께 수렴하고 지향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종단의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취임 초기에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흔들림없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잡음을 잠재우고 순조로운 총무원장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한 종단의 행정수반은 전체를 유기적인 관계 속에 파악해 치료할 필요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치료의 분기점에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의 막중한 위치이다.

조계종이라는 거인이 벌떡 일어나 한국불교를 빛나게 하기를 바라는 100만 불자의 염원이 스님의 양어께에 걸려 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고, 끊임없이 병의 근원을 찾아내서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치료하는 지혜로운 행보가 이어질 기원한다.

이렇게 들었다

인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인력에 이르게 하며, 자신을 지켜 주며, 벗이 되어 주며, 아름다운 명예를 가져온다. 인욕은 부(富)를 얻게 하며, 바른 용모를 갖추게 하며, 위대한 힘을 얻게 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며, 원수와 고뇌를 이기게 한다.

최근 생활고를 비난한 30대 남자가 지하철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방화 용의자는 이용객이 많이 붐비는 퇴근 시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방화 이유는 방해도 못 내고 휴대전화도 끊기는 등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생각나게 하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물질만능시대, 이처럼 자신의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한 두건이 아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인욕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세히 일러준 부처님은 "인욕은 큰 배와 같아서 고난을 견뎌내고, 좋은 약과 같아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고 했다. 한번의 인욕으로 얻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올라오는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더 깊은 괴로움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한번 인욕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 넘을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수많은 대립과 반목을 잠재울 지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폐사지 지킴이에 감사

지난 10월 16일 모처럼 가족들과 양주 회암사지 음악회를 찾았다. 마땅한 문화 이벤트가 없는 경기북부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대형공연을 보기 위해 몇 주 전부터 가족들과 약속을 한 뒤였다. 입금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었지만 가족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지켜봤다.

영산제, 민족음악관현악단 연주, 김성녀·박애리씨의 우리노래, 젊은 시절 너무나 좋아했던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 야단법석의 타악퍼포먼스, 해금 연주 등 화려하고 흥겨운 무대의 감동이 아직도 잔잔히 남아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날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폐사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또 이러한 폐사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전국에 2000여개나 되는 폐사지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힌 민족의 소중한 문화 유적이면서 1600년 불교의 뿌리를 보여 주는 바로 미터라는 것도 알았다.

무분별한 개발, 복원 등으로 훼손되어 온 폐사지를 지키기 위해 1폐사지 1지킴이 운동, 음악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온 문화복지연대와 현대불교신문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진홍년 (경기도 의정부 금호동)

북관대첩비와 불교계

은 국민의 관심속에 10월 20일 북관대첩비가 인천공항에 안착, 100년만에 조국의 품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한일불교복지복지회장 초산 스님의 오랜 원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난 4월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북관대첩비에 대한 남북한 언론들에 대대적 보도도된 후 한국주재 일본 대사관을 경유, 고이즈미 총리의 허가를 받아내까지 반년의 세월이 지났다.

한 가난하고 힘없는 수행자가 만들어 낸 민간외교의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이렇게 초산 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서 가운데서도 정부당국이나 불교계는 어떤 지원과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은 주위의 냉소 속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그러나 막상 북관대첩비가 돌아오니 마치 정부와 일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공인양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자로서 매우 서글픈 마음이 앞섰다.

이제 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수많은 불교 문화재와 보물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제2, 제3의 초산 스님이 나올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주승(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 기획팀장)

종책선거는 꿈인가?

불자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새롭게 당선된 스님에게 우선 축하를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바로 종책토론회의 무산이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상호 검증하고 실천여부를 토론하는 장이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각종 선거에서는 합동토론회가 필수코스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유독 불교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10여일에 불과한 선거기간동안 6명이 넘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로부터 여러 단체들은 후보자 종책토론회를 개최하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됐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계의 전근대적인 모습이 답답할 뿐이다.

1000만 불자를 대표하는 스님이라면 자신의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불교계의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던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춘섭(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Advertisement for '연대' 민영 (Solidarity)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pushing a cart with a sign that says '불교환경의제 21' (Buddhist Environmental Agenda 21). The text below the illustration says '구호에서 이전 실천입니다' (From relief to action).

Advertisement for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Title: '제 1기생 모집 명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Recruitment of 1st Year Students for the Course of the Highest Level of Mingli Studies). It lists educational content, enrollment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imma Ni Tojong Oga Pi (심마니 토종오가피).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ginseng root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quality and health benefits. Contact information for (주)현풍F&B is provided.